제시문 (가)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, 제시문 (나)는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. (가)는 좀 답답한 것 같고, (나)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.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.  
  
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,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. 꼭 삶의 목적처럼 거창한 게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소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. 그래서 저의 행복은 ‘일상 속의 작은 기쁨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